

전시의 서울과 피난의 (불)가능성

이 민 영*

요약

한국전쟁에 있어서 피난은 민중들이 경험하는 주요한 전쟁체험이었다. 전시가 급격하게 변하였던 한국전쟁의 특수성상 대다수의 국민들은 피난민의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본고에서는 피난을 한국전쟁 체험의 주요한 양상으로 보고, 피난을 떠난 자들과 피난을 떠나지 못한 자들의 서사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는 '피난하는 국민'의 정체성이 단순히 '침략 당한 약소민족의 수난'이라는 국가주의적 담론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전쟁체험으로부터 거리감을 확보하지 못한 전시의 소설들은 개인의 생존을 도모하는 피난민의 현실과 민족주의적 수난의 서사 사이에 놓인 모순들을 재현해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최인욱의 『목숨』, 김송의 『서울의 비극』, 염상섭의 『해방의 아침』, 강신재의 『눈물』, 김광주의 『불효지서』, 한무숙의 『아버지』와 그 외 수기의 형식으로 피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적화삼삭구인집』, 『고난의 90일』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한다.

전쟁기의 작품들은 급변하는 전쟁의 상황에 따라 피난에 대한 유희적인 의미망을 구축해낸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피난의 문제가 부각되는 주요 시점인, 1950년 6월 25일의 상황과, 1950년 9월 28일의 상황 그리고 1951년 1월 4일의 상황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당시 서울의 전황은 매우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었고, 국민적 정체성을 상상하게 하는 수도에서 정부가 이탈함으로써 대혼란이 일어난다. 피난하는 정부가 구성해낸 수난의 서사는

* 서울대학교 강사

다시 피난을 떠나는 민중들에게 전이되었지만 전쟁의 공포와 생존의 문제는 여전히 서사의 이면에 남아있다.

본고에서는 국가화 되지 못한 피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쟁 발발 후 3일간의 상황을 다루는 서사에서 피난은 오히려 공동체를 이탈하여 개인의 생존만을 추구하는 배신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하지만 서울 수복이후 다시 돌아온 피난민들은 피난을 민족의 양심적 행위로 규정하고 잔류민들에게 죄의 고백을 강요한다. 잔류민들은 돌아온 국민들의 폭력적 힘을 마주하면서, 반공주의적 양심의 개념을 개인의 내적 윤리로 재정립하고 잔류민과 부역자의 관계를 분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잔류민의 자기증명 속에서 잔류민과 피난민들이 공유하는 생존의 문제가 다시 부각된다. 잔류민의 서사를 통해 민족의 운명으로 환원되는 피난의 의미는 의심의 대상이 된다. 이는 1.4후퇴 이후 서울을 기록하는 서사들에서 더욱 명확하게 발견되는바, 부산으로 피난을 떠난 주인공들은 서울에 남은 자들을 목격하게 되면서 자신의 피난에 남아있는 생존의 욕망을 직시한다. 이러한 개인들의 욕망은 국가주의적 피난 서사로 환원되지 못한 채, 개인들의 죄책감과 부채의식으로 남겨진다.

주제어: 도강, 비도강, 6.25, 1.4후퇴, 9.28 서울수복, 반공주의, 양심

목차

1. 서론
2. 1950년 6월 25일의 서울, 전쟁의 시작과 숭고한 국민의 탄생
3. 1950년 9월 28일 이전의 서울, 반공주의적 양심과 생존의 논리
4. 1951년 1월 4일 이후의 서울, 비어있는 수도와 남은 자들의 시선
5. 결론

1. 서론

한국전쟁은 국토를 가로지르는 전선을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선을 넘나들게 되었고, 위태로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에 있어서 피난은 국민들이 직접 경험한 전쟁의 실체이다. 본 연구는 한국전쟁에서 피난이 주요한 전쟁체험으로 경험되었음을 전제로, 피난의 문제를 전쟁사회의 근본적인 위기의식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피난하는 국민’은 곧 수난당하는 민족의 운명으로 상상되었다.¹⁾ ‘북한 괴뢰군의 침략’이라는 전쟁서사가 구성되면서, 피난은 시련을 당하는 약소민족의 역사로 수렴되었다. 하지만 실제 전쟁기의 텍스트들을 염두에 둘 때, 이와 같은 피난하는 국민에 대한 상상력은 일관되고 통일된 것이라 할 수 없다. 피난하는 자들은 민족을 상상하기에 앞서 생존의 위기를 인식하였고, 피난을 떠나지 못하는 자들은 국경 밖의 국민으로써 개인의 생존을 도모해야만 했다. 즉 전쟁기 피난의 문제는 민족의 서사로 수렴되기 이전에 전쟁의 공포와 위기의식으로 체험되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피난과 잔류의 서사를 통해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안정적인 국민의 상징과 갈등하는 불안한 민중들의 모습을 규명해 보고자한다. 피난은 본질적으로 반공국민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다. 피난은 국군의 패배를 인정하고 정부부재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괴뢰에 의한 수난으로 피난을 의미화 하면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빈곤한 정부의 처지를 소거해내었다. 하지만, 피난을 떠난 자들과 남아있는

1) 대한민국 역사에서 또 하나의 ‘건국신화’를 만들어낸 피란은 ‘국민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징표이자, 북한의 침략성을 만천하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입증해 준 성스러운 ‘엑소더스’의 기억으로 자리잡아왔다.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9, 119면.

자들은 민족의 수난으로 수렴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국가의 모습을 목격하였다. 따라서 전쟁기 피난하는 국민을 기록하는 것은 강력한 반공의 논리를 내포하는 동시에, 반공주의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했다. 본고는 이러한 피난의 양가적인 측면을 전제로 피난과 피난불가능의 상황에 놓인 자들의 서사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전쟁기 서울은 피난민과 잔류민의 운명이 나뉘는 극적인 공간으로 기능한다. 수도는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면서 통일된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서울의 장소정체성²⁾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기반이 되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수도-서울은 반공의 상징적 도시로 변모하였고, 서울시민들은 피난을 통해 이러한 기표를 완성했다고 간주되었다. 이와 같은 의미화 과정 속에서 한국전쟁 중 부재하였던 수도-서울은 주목받지 못했다.³⁾ 적치 하에 놓였던 서울의 과거는 서울 수복의 서사 속에서 망각된다. 식민사회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성공한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의 소실점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쟁기 서울에 주목함으로써 부재하는 수도로 상징되는 한국전쟁기 불안정한 국가권력을 직시하고 이러한 반공의 체제 하에서 피난이라는 생존의 위기상황에 물리게 된 국민의 내면을 살펴보고자한다. 전쟁기 서울에 대해 다루는 기존의 연구들은 소략하며⁴⁾, 피난의 문제는 대부분 잔류파와 도강파의 입장을 중심으로 다

2)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108-110면.

3) 전쟁기 도시연구가 임시수도였던 부산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피난과 부산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을 다음과 같다. 나보령,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피난지 부산과 아메리카니즘』, 『인문논총』 74권 1호, 2017.2; 이순욱, 『한국전쟁기 문단 재편과 피난문단』, 『동남어문논집』 24, 20007.11; 차철욱, 『한국전쟁기 임시(피란)수도 부산의 재현과 의미』, 『항도부산』 35호, 2018.2; 박덕규, 『6.25 피난공간의 문화적 의미』, 『비평문학』 39, 2011.3.

4) 1950년대 서울의 재현양상을 다루는 연구는 송은영, 「1950년대 서울의 도시공간과 문학적 표상」, 『한국학연구』 29, 2013; 김영미, 「박완서 문학에 나타난

뤄진다.⁵⁾ 이러한 연구에서 피난은 사상 검증이라는 정치적 요구를 중심으로 이해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잔류와 도강의 문제를 대립적 관계로 설정하였고, 잔류민과 피난민 사이의 관계를 안정적인 반공의 권력구조로 환원하였다. 하지만 부역자 처벌에 대한 강렬한 공포심에도 불구하고 피난하는 국민은 반공국민의 정체성으로 온전히 수렴되지 못한다. 전쟁의 체험은 피난과 잔류사이에 놓인 생존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피난민과 잔류민 사이에 놓인 교차적 관계들에 집중하여 피난과 피난불가의 상황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강과 비도강의 정체를 나누었던 1950년 6월 25일의 피난 상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들이 피난을 떠난 1951년 1월 4일 이후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한국전쟁은 초기 1년여의 전면적인 전쟁이후 2년간의 국지전(휴전협정)으로 이어졌다.⁶⁾ 따라서 급변하는 전황과 피난의 장면은 초기 1년에 집중된다. 본 연구는 전쟁초기 서울의 상황을 재현하는 서사를 통해 피난의 과정과 그 논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쟁기 피난의 문제는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1950년 6월 25일)과 1950년 9월 28일까지 적치 하에 놓인 서울의 모습을 다루는 서사, 그리고 1.4 후퇴 이후의 삶을 기록하는 서사에서 부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50년 6월 25일의 서울과 1950년 9월 28일 이전의 서울, 1951년 1월 4일 이후의 서울을 다루는 서사들을 통해 피난민과 잔류민의 내면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피난을 떠난 자들과 남아있는 자들의 관계는 반공과 빨갱이라는 확고한 구조로 환원될 수 없다. 피난과 잔류는 각자의 위기상황에서

서울에서의 한국전쟁 체험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54, 2018.4 등이다.

5) 유입하, 『이데올로기의 억압과 공포』, 『현대소설연구』 25, 2005; 서동수, 『모윤숙의 피난체험과 도강파의 글쓰기』, 『한국문예비평연구』 33, 2010.12; 서동수, 『한국전쟁기 문학담론과 반공프로젝트』, 소명출판, 2012.

6) 박태균, 『한국전쟁』, 책과함께, 2011, 225면.

생존을 도모한 서로 다른 결과였다. 전쟁기의 급변하는 상황을 다루는 소설들은 이와 같은 문제적인 지점들을 노출한다. 표면적으로 강력한 반공의 논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민족수난의 역사로 봉합되지 못한 피난서사의 균열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피난을 떠난 자들과 남아있는 자들이 마주치는 순간은 바로 이러한 균열이 목격되는 최초의 지점이다. 피난을 떠난 자들과 피난을 떠나지 못한 자들의 대화를 통해 빨갱이와 반공국민으로 이원화 될 수 없는 유동적인 서울 시민들의 정체성을 밝히고, 국가주의적 반공론에 내포된 불일치의 지점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1950년 6월 25일의 서울, 전쟁의 시작과 송고한 국민의 탄생

1945년 해방이후 미소군정이 수립되고 38선을 경계로 남북의 정부가 설립된 후, 경계선 근처에서는 국지적인 분규가 지속되었다.⁷⁾ 1950년의 6월 25일은 이러한 군사상의 대립관계가 실질적인 전쟁의 형태로 이어지는 최초의 순간이었다. 기존의 국지적 분규로 인해 서울의 시민들은 6월 25일 당일 전쟁의 발발을 실감하지 못하고 피난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한다.⁸⁾ 하지만 전쟁기 반공서사들은 ‘북한의 남침’이라는 사건을 강조하면서 6월 25일 이전의 군사 갈등을 이후의 전쟁 상황과 즉각적으로 분절해 낸다. 6월 25일의 전쟁 상황이 강조됨에 따라 이전의 대칭적인 남북갈등의 상황은 종결되고 북한피괴정권에 의해 침략당하는 민족수난의 서사가 구성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최인욱의 『목숨』(1950)과 김송의 『서울의 비극』

7) 정병준, 『한국전쟁-38선의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9, 85-86면.

8) 김동춘, 위의 책, 138면.

(1951)은 6월 25일을 곧바로 전쟁의 시작으로 인식하면서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과 소총을 들고 싸우는 국군의 모습을 대비시킨다. 이들의 작품은 갑작스러운 북한의 침략으로 인해 피난가지 못하는 주인공을 그려내면서 비극적인 민족의 운명을 서사화 한다.

『서울의 비극』과 『목숨』은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는 3일간의 긴급 상황을 서사의 시간적 배경으로 삼는다. 북한군이 남한으로 진격해오는 급박한 전황을 강조하는 서사 구조 속에서 피난의 가능성은 봉쇄된다. 이들은 ‘서울을 사수하라’는 정부의 입장⁹⁾을 그대로 실현해 내면서 서울로 입성하는 인민군을 직접 목격하기 전까지 자신의 집과 일터를 지키다가 적이 서울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음을 인식하고 좌절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목숨』의 주인공인 조병기는 아들을 국군에 보낸, 병원 원장이다. 6월 25일 당일 조병기는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짐작하게 되는데, 이때 그는 남북 간의 전쟁을 즉시 수궁하고 그 전쟁의 일원이 될 것을 다짐한다. 전쟁이 발발한 것이라면 “멋지게 숨쉴 부러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선언하는 주인공의 태도는 그가 이미 전화(戰禍)를 두려워하는 개인이 아닌 신성한 국가의 이념을 체현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낸다. 조병기는 신문 보도 등을 통해 전쟁의 상황을 인지한다. 전쟁 발발 당시 신문들은 정부가 수원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국군의 해주 진격 등을 강조하면서 서울의 시민들에게 ‘서울을 지키기’를 요구한다. 조병기는 이러한 요구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서 개인의 생존을 위해 피난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남기를 선택한다.

지금 조국의 운명이 최후의 일전에 달린 이 엄숙한 시각에 군부의 공용차를 일개인의 사용에 돌려 가족과 살림을 실어내

9) 김동춘, 『서울시민과 한국전쟁』, 『역사비평』, 2000.5, 49면.

다니, 생명도 귀하고 재산도 증하지만, 한계단 초월해서 잠시 내드린 발은 멈추고 다시 한 번 냉정히 생각해야 할 일이었다.

안해가 고리짝을 들고 미닫이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병기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그것을 도로 빼앗았다.

「창기야 너는 군인이다. 알겠니? 지금 곧 군부로 달려가서 최선을 다 해 싸워라 뒷일은 다 내 담당이다.」¹⁰⁾

군에 있던 아들이 돌아와 군경의 가족에게 닥칠 위험을 강조하면서 피난을 종용할 때, 조병기는 그에게 ‘군인’을 강조하면서 다만 싸울 것을 요구한다. 조병기는 전쟁 발발과 동시에 자신의 아들을 국가의 아들로 수용하고, 자신의 운명을 국가의 운명으로 치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조병기는 병원의 원장이 아닌 “한 계단을 초월”한 숭고한 국민이 된다. 피난을 거부하는 조병기의 태도는 군부의 공용차를 개인을 위해 쓸 수 없다는 대의명분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피난은 단순히 북한 군에 의해 수난 당한 국민의 운명으로 재현되지 않는다. 6월 25일의 급박한 상황을 강조하는 서사에서 피난은 서울을 지켜야 하는 국민의 의무와 대치되는 ‘비겁한 도망’의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생존을 위한 피난’의 의미는 실제 6월 25일 피난민의 심리를 통해 보다 사실적으로 드러난다. 『서울탈출기』를 통해 전쟁발발직후 피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유진오의 기록은 이러한 비겁한 도망자들의 모습이 실제로 당시에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¹⁾ 그리고

10) 최인옥, 『목숨』, 『문예』, 1950.12, 94면.

11) 『고급차가 지나간다. 여인들과 이불보따리로 차 안이 꽉 찼다. 동으로 서로 미친듯이 질주하는 트럭, 찌프, 승용차들도 이미 대부분은 조직적인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 같이는 보이지 않는다. 무질서, 혼동, 한사람 한사람이 제각각제 목숨을 건지려고 광분하는 꼴, 동물적 본성, 예의도 염치도 교양도 다 벗어 버린 적나라한 인간의 정체. 문득 나는 청량리에다 버리고 온 나의 처자와 집과 책 등을 생각하였다. 그것들을 다 버리고, 홀몸으로도 차하나 못 얻어 타는 이

피난을 결심한 자신 역시 개인의 생존을 위해 서울을 떠났다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드러낸다. 『목숨』의 허구적 서사와 달리 실제 피난의 수기라 할 수 있는 『서울탈출기』는 피난민의 개인적인 내면을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대체 무엇을 하러 지금 어디로 가려는 것인가? 사랑하는 어린 것들과 아내, 정든 책과 책상, 오십 평생을 개미 같이 꿈지럭거리 이룩해 놓은 모든 것을 다 평가치고, 무엇을 구해 어디로 가는 길인가? 12)

유진오의 시선 속에서 피난은 생존을 위해 자신이 이룩한 것과 가족을 모두 버린 비겁한 행동으로 서술한다. 6월 25일을 중심으로 하는 피난의 서사는 개인을 보호하는 정부의 권력이 부재하고 이에 따라 생명이 위태로워진 국민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때의 피난 서사에서 피난은 아직 ‘민족의 수난’으로 정제되지 못한, 생경한 생존의 문제로 실존한다. 이러한 생존의 문제 앞에서 고백적 태도를 전제로 하는 수기의 주인공은 한없이 불안한 피난민의 정서를 내보인다.

전쟁 발발직후의 소설들은 피난 가는 자들이 감지하는 불안감과 죄책감을 보다 극적으로 가시화 하면서 생존을 위한 피난의 의미를 구체화한다. 그리고 피난을 가지 않는 자들의 서사를 구성해냄으로써 국가를 위해 자결하는 숭고한 국민을 상상해낸다. 가족을 먼저 피난 보낸 조병기는 자신의 병원과 살림을 “끝까지 지키는 대로 지키고자” 한다. 서울의 불리한 전황을 직접 목격하게 된 후 그는 비로소 피난을 결심하지만, 끊어진 한강다리를 앞에 두고 그의 피난

신세로, 지금 나는 어디를 가려는 것인가?」 유진오, 『서울탈출기』, 『고난의 90일』, 수도문화사, 1950, 20면.

12) 유진오, 위의 책, 45면.

계획은 좌절된다. 피난을 통한 생존의 가능성이 박탈되고, 인공기를 달아야만 하는 “굴욕적인 상황”에 놓인 조병기는 결국 자살을 선택한다. 피난이 아닌 자결을 선택한 조병기의 모습을 통해 정부부재의 상황에 놓인 위태로운 시민들의 처지는 소거된다. 자결이라는 결말을 통해 전쟁 발발과 동시에 서울을 버린 정부의 무책임과 남겨진 시민들의 공포를 봉합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운명을 국가의 운명으로 환원하여 서울의 점령을 곧 주인공의 죽음으로 서사화 하는 것은 김송의 『서울의 비극』에서도 반복된다. 『서울의 비극』은 보다 노골적으로 주인공의 운명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운명으로 치환하고 자신의 삶을 곧 국제적인 자유진영의 위기로 인식한다.¹³⁾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서울’은 단순한 생활의 공간이 아닌 자유세계의 경계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전쟁의 위기를 통해 반공적 국민이라는 주체를 구성해내는 『서울의 비극』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반공국민이 『목숨』의 주인공처럼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지닌 인물이 아니라 남한사회 내에서도 여전히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서울의 비극』은 6월25일의 전쟁 발발상황을 기점으로 “민족운동”을 했던 형철이 가족을 피난 보내고, 약혼자와 이별한 뒤 홀로 인민군을 바라보며 자결하게 되는 과정을 서사화한다. 형철은 전쟁 발발의 순간 자신의 생존이 불가능해졌음을 인식한다. 전쟁에 앞서 그에겐 또 하나의 생존의 문제가 놓여있는데, 그것은 “굶어 죽는다.”는 위기의식이었다. 인민군의 남하와 쌀 부족이라는 두 개의 위기상황에서 형철은 곧 전자로부터 기인하는 생존의 위기를 망각한다. 그는 쌀을 구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걱정을 무지의 소산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쌀이 없어 죽는 것이 개인의 비극이라면 서울의 점령은 민족의

13) 이민영, 『1945년-1953년 한국소설과 민족담론의 탈식민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14면.

비극임을 강조한다. 형철에게 민족의 비극은 당연히 개인의 비극에 앞서는 것이었고, 따라서 그는 개인의 생존이 아닌 민족의 비극을 절감하면서 자신의 생존이 불가능할 것임을 예감한다.

쌀 부족의 상황에서 형철은 굶어 '죽을 수는 없다'고 다짐하였다. 하지만 인민군의 남하 과정을 인지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생존의 욕망은 사라지고, 그는 서울이 점령되면 당연히 “모두 죽어야 한다.”고 외친다. 수도의 점령은 곧 민족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건한 자결의 논리에는 개인의 생존을 부정하고 반공국민으로 승화할 것을 명령하는 국가주의적 목소리만이 남는다. 그는 서울이 곧 세계의 끝이라고 인식하면서 피난의 가능성을 일축한다. 생존을 위해 쌀을 구하는 것이 민족의 운명을 보지 못하는 개인적인 행위였던 것처럼, 수도를 버리고 떠나는 피난 역시 수도의 운명을 개인의 운명을 치환하는 반공국민에게는 불가능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순결한 반공국민의 정체성은 피난을 주장하는 여동생과의 대화를 통해 갈등의 지점을 드러낸다.

「염려마라 우리 국군이 있으니까. 능히 막을 테지. 수도가 함락됐어야 되겠나?」

「그렇기는 해요. 그렇지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우리가 서울을 내놓게 된다면-」

「그때에는 죽어야지 모두 죽어야해.」

형철은 자기의 결심한 바를 무의식중 토해놓고야 말았다.

그러나 형순은 그의 이지적인 눈을 번쩍이고 아래와같이 말한다.

「전 죽는데 반대예요.」

「왜?」

「왜 죽어요. 흥」

「그럼 그놈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나! 더럽게!」

「아침을 하자는게 아니에요. 끈게 살아야죠. 살아서 살아서 복수해야지요.」

「내 생각같아서는 살도리가 없어. 빨갱이 천하에서 어떻게 산단말이나.」

「서울을 탈출하지요.」¹⁴⁾

형철에게 수도의 운명은 곧 민족의 운명이었다. 따라서 민족주의자로서 형철의 운명은 수도의 운명과 동일시된다. 하지만 형철의 여동생인 형순에게 피난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는 것으로 남는다. 오빠의 눈을 바라보며 “죽는데 반대”한다고 이야기하는 형순의 논리는 결국 살아서 복수해야한다는 반공주의적 논리로 표면화된다. 하지만, 서울을 탈출해서도 ‘살 수 있다’는 형순의 반공론은 형철의 반공주의와는 분명히 다른 결을 드러낸다. 형순은 수도의 점령, 정부 부재의 상황에서도 생존의 방법을 모색하며, 이러한 생존이 가능할 것임을 주장한다. 형순의 생존에는 수도의 운명으로 환원될 수 없는 여분의 가능성들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서울의 비극』에서 ‘서울을 탈출한다.’는 것은 곧 국가와 민족의 담론으로 일치될 수 없는 개인의 생존 욕망을 드러낸다. 그리고 “왜 죽어요.”라고 되묻는 형순의 목소리를 통해 국가의 운명에서 이탈하는 피난의 생존논리가 드러난다. 자결을 통해 국민으로 승화될 수 없었던 피난민들의 모습이 목격되는 것이다.

14) 김승, 『서울의 비극』, 『전쟁과 소설』, 계몽사, 1951, 73면.

3. 1950년 9월 28일 이전의 서울, 반공주의적 양심과 생존의 논리

1950년 6월 25일 이후 상당수의 서울 시민들은 서울에 잔류하면서 인공치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다. 전쟁발발당시 서울의 시민들은 서울의 함락을 곧 개인의 죽음이라 사유하기보다 자신들과 무관한 정권간의 갈등관계로 인지했으며, 인민군의 점령으로 자신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있게 될 것을 예감하지 못한다. 하지만 90일간의 인민군 점령상태를 경험한 서울의 시민들은 국군과 북한군의 전쟁이 곧 자신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총력전이 되었음을 인식하게 된다.

1950년 9월 28일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국군을 마주하는 잔류시민들에게는 기쁨과 환희라는 하나의 표정만이 나타나지 않는다. 전쟁기의 소설들은 수복한 지역에 들어서는 국군들을 맞이하는 시민들의 복잡한 표정을 놓치지 않는다.¹⁵⁾ 그들에게는 인민군이 정말 떠났는지 의심하는 마음과 돌아온 국군들 앞에서 정당히 생존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 다시 서울을 점령한 정부와 군대는 곧 잔류민들에게서 공산주의의 오염정도를 감지해내고자 한다. 그리고 잔류민들은 자신들이 공산주의에 동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돌아온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확보하고자 한다. 인민군 점령기 서울에 남은 문화인을 대상으로 하는 『적화삼삭구인집』(1951)은 서울을 떠난 자들과 남은 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극명하게 드러낸다.

15) 집집마다 서로 떨어진 孤島의 생활이고 땅바닥을 의지하는 穴居生活이었다. 地上의 主人公이 바뀌어진 것이다. 人道가 없어지고 彈道가 그물을 쳤다. 『自由를 위하여 正義를 위하여 恒久的의 平和를 위하여.....』 그러나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孤島나 洞窟속에서 사람들은 시시각각으로 動物로 動物로 돌아가고 있었다. 장용학, 『찢어진 윤리학의 근본문제』, 『문예』, 1953.6, 145면.

『적화삼삭구인집』은 반공검사로 유명한 오제도 검사의 요청에 따라 인민군점령기 서울에 남아있던 문화인들에게 적치하의 경험을 서술하도록 요구했던 책이다. 오제도 자신이 책의 말미에 『민족양심의 반영』이라는 글을 실음으로써, 이 책은 잔류민들에게 인공치하의 부역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지시한다. 『적화삼삭구인집』의 간행의도를 서술하는 오제도는 ‘민족적 양심’을 근간으로 잔류민들의 반성을 요구한다. 그에게 민족의 양심은 ‘반공국가’라는 초월적 존재에 의해 주도된다. 전쟁 발발 당시 피난을 떠났던 정부가 요구하는 민족의 양심은 의식적인 차원에서 죄책감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개인의 무의식 속에서 도덕과 비판의식을 만들어내는 초자아로부터 비롯하는 양심¹⁶⁾과 달리 3개월 동안의 급변하는 전세 속에서 반공국가라는 정체성을 확보해야 했던 남한 정부는 의식적이고 급진적인 국가주의적 초자아의 상을 구성해내었던 것이다.

오제도의 글이 민족적 양심을 통해 반공주의를 증명하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공산주의 사상이 본질적으로 민족주의가 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공산주의에 놓여있었다는 것은 곧 양심을 저버린 일이므로 피난을 떠난 양심적인 민족을 향해 죄를 고백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의 양심을 “보고싶”어하는 도강과의 요청¹⁷⁾은 비교적 선명하였고, 『적화삼삭구인집』의 서술자들은 각각의 방식을 통해 국가적 초자아의 시선 앞에서 개인적 죄책감을 고백하기에 이른다.

손소희, 최정희 등이 문학적 방식을 통해 다소 은유적으로 민족의 양심을 드러내고 있다면, 양주동은 『공란의 교훈』이라는 비평문을 통해 보다 직설적으로 적치하의 서울을 반성한다. 양주동의 글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양심의 고백이 서울을 떠난 자들의 요청과 공

16)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2014, 238면.

17) 오제도, 『민족양심의 반영』, 『적화삼삭구인집』, 국제보도연맹, 1951, 143면.

명하는 한편,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양주동은 공비의 구십일간을 “마마”의 질병에 비유한다. 그리고 서울에 잔류하였던 시민들을 이러한 질병의 유행을 겪은 뒤 면역성을 얻은 자들¹⁸⁾로 설명한다. ‘민족적 양심을 보여 달라.’는 오제도의 요청에 ‘우리는 면역되었다.’ 라고 말하는 양주동의 답변 사이에는 분명 서로에게 전달되지 않는 소통의 맹점이 놓여있다.

공산주의를 질병에 비유함으로써 양주동은 잔류민에게 ‘면역’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면역’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면역되지 못한, 오염 된 잔류민들의 정체성들을 구분해나간다. 양주동은 “빨갱이”란 총칭을 세분화 하면서 그 명칭에서 ‘본질적인 빨갱이’와 “일시적인 빨갱이”를 구획해낸다. 특히 그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빨갱이의 개념에 주목하여 ‘괴현혹자’, ‘기회주의’, ‘피동적 빨갱이’ 등으로 그 정체성을 나누어나간다. 이러한 구획의 목표는 이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일부를 민족적 포섭의 대상으로 삼고, 토공부대의 일원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양주동의 글에서 본질적인 빨갱이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는 일시적인 빨갱이 중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산주의에 협력한 기회주의자들을 가장 경계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빨갱이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잔류민에게 반공국민의 기회를 제공하고자한다. 그의 글은 결국 “자신의 과오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당국에 감사하면서 격공전선에 전력을 바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속죄의 논리이면에는 오제도가 요구했던 민족적 양심을 또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고자

18) 공산주의는 종종 전염병의 형태로 비유되는데, 양주동의 경우 자발적 부역자들을 제외하고 공산주의를 경험했다는 것을 근거로 면역성을 증명한다. 이는 반공 글쓰기를 통해 면역-치유의 과정을 거쳤다(서동수)라기보다 잔류 체험 그 자체로부터 강력한 반공의 당위를 증명하려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서동수, 『한국전쟁기 문학담론과 반공프로젝트』, 앞의 책, 287면 참조.

하는 잔류민의 욕망이 존재한다. 그것은 반공국민의 양심의 문제를 개인적 윤리의 차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선악의 윤리적 구도 속에서 반공주의의 기준은 공산지역과 반공지역을 가르는 전선(戰線)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 빨갱이는 공산정권에 놓여 이들에게 부역한 자들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산주의를 선택한 기회주의자들을 일컫는 이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하에서 민족의 양심은 적치하의 서울이라는 공간적 경계를 통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윤리를 통해 구성된다.

‘일시적인 빨갱이’의 구획은 분명 반공국가가 요구하는 속죄하는 잔류민의 모습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를 통해 반공은 이념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선악이라는 근본적이고 당위적인 문제로 변화하였고 피난을 떠났던 자들은 ‘윤리적인 반공국민’의 상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1950년 9월 28일의 서울 수복 이전의 잔류민의 상황을 다루는 서사들은 대부분 자신의 사상을 증명하기보다, 이웃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비판하는 방식을 통해 공산주의의 부도덕성을 비판한다. 염상섭의 『해방의 아침』(1951)은 이러한 잔류민의 양심의 논리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 작품은 부역자였던 이웃의 태도를 경멸하면서 기회주의적 빨갱이에게 죽음을 선고하고, 새로운 젊은 세대에게 도덕적 반공국민의 지위를 보장한다. 『해방의 아침』은 젊은 여성인 인임을 주인공으로 삼아, 인공치하에서 부역활동을 한 이웃을 고발하도록 한다. 인임은 돌아온 정부 앞에서 자신의 부모님을 속여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게 만든 원숙이네 어머니의 부역활동을 증언한다. 인임이의 역할은 공산주의의 비인간성을 ‘알고 있다’는 점을 통해 진짜 비국민을 분류해 낼 수 있다는 잔류민의 면역성을 증명한다. 그리고 동시에 윤리적인 잔류민의 반공주의를 구성해낸다.

『해방의 아침』에서 비양심적인 이웃으로 형상화 되는 기회주의적

빨갱이들은 진짜 빨갱이들보다 위험한 존재들이다. 잔류민의 반공주의는 기회주의적 빨갱이들을 국민의 경계로부터 추방하는데서 시작된다. 인입은 “그럼 저의들 살려주고 우리가 대신 죽어두 좋을까요!”라고 당차게 말하며 이웃의 생존을 걱정하는 아버지를 질책한다. 어른들이 아닌 전쟁의 세대로 새롭게 등장한 인입과 그의 오빠에게 반공과 빨갱이의 사이에는 분명한 선악의 구획선이 놓여있다. 따라서 잔류민들의 서사에서 기회주의적 빨갱이는 이웃 혹은 혈연이라는 이유로 혼동될 수 없는 극명하고 단순한 적의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들은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했던 아버지의 세대와 결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에 남았던 시민들에게 더 이상 중간과적인 입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제 잔류민들은 삼팔선 이남의 경계에 온전히 귀속되었으며, 그 경계의 운명과 함께 할 것임을 다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주의적 양심을 통해 반공주의는 이제 윤리적 반공국민의 상을 구축하였고, 피난민과 잔류민들은 양심적 반공주의이라는 공동의 이상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다만 반공주의의 정당화 과정뿐만이 아니었다. 전시의 피난이 반공국민의 자격으로 의미화 되는 동안 개인의 생존을 위한 피난은 침묵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남아있던 자들의 생활을 목격함으로써 피난민들은 다시 전쟁의 잔혹함과 개인들의 생존문제를 발견하게 된다.¹⁹⁾ 피난이 안정적인 국민화의 과정이 아니라 위태로운 생존전략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강신재의 『눈물』(1951)은 자발적 부역자의 내면을 서술함으로써 잔류민이 구성해낸 양심적 반공주의의 논리를 표면화하는 동시에 국가화 된 피난서사

19) 모운숙을 비롯한 도강파 문인들이 내세운 피난의 명분이란 잔류파 문인들이 내세운 ‘생의 욕망’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도강파 문인들이 행한 피난 역시 생의 욕망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서동수, 위의 책, 160면.

의 모순을 노출한다.

『눈물』은 “9.28 국군의 서울 탈환을 이삼일로 앞두고 변사해버린” 송정화의 비극적인 삶을 기록한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송정화는 ‘보기도문 추물’로 인민군 점령하의 서울에서 쌀 배급을 받고 그들의 회유책에 설득당해 부역활동을 한다. 하지만 전세가 역전되면서 도망기는 인민군에게 총살당하는 운명에 놓인다. 공산주의에 경도된 추한 여성이라는 주인공의 설정은 반공과 공산주의의 윤리관계를 미추의 관계로 시각화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민군에 현혹 당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송정화는 ‘기회주의적인 빨갱이’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시적 빨갱이가 결국 자신이 믿었던 인민군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비극적인 결말은 표면적으로 확고한 반공의 논리를 보여준다.

송정화의 삶은 비극적 민족의 운명으로 상징되는 여성수난사²⁰⁾와 매우 유사한 서사구조를 보인다. 하지만, 송정화가 남성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지니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어리석게도 인민군을 믿은 자라는 점에서 그녀의 비극적인 삶은 민족의 운명으로 환원되지 못한다. 송정화의 운명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눈물』은 어리석고 추한 여성 주인공을 바탕으로 인민군점령기의 서울을 다룬다는 점에서 현실에 대한 풍자적인 거리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눈물』의 서사가 문제적인 것은 어리석고 추한 여성, 그러므로 독자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화자의 목소리를 불신하게 만드는 서사의 구조²¹⁾가 확고하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송정화가 인민군에게 동조하게 된 것은 그가 경험했던 배제의 기

20) 권명아, 『여성 수난사 이야기, 민족국가 만들기와 여성성의 동원』, 『여성문학연구』 7, 2002, 107면.

21) H. 포터 애벗, 『서사학 강의』, 문학과 지성사, 2010, 150면.

역 때문이다. 『눈물』에서 송정화는 두 번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죽기 전 마지막 눈물이 인민군에 의해 총살당하는 것 때문이었다면, 첫 번째 눈물의 원인은 인민군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추한’ 자신을 배제하고 무시하던 이웃들 때문이었다. 전쟁의 발발이전에, 송정화의 비극적인 운명은 이미 예고되고 있었던 것이다.

송정화는 귀전으로 흘러들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후닥닥 일어나 섰다. 지금 그게 복이네 목소리 같던데, 아니 그럼 동내서 모두들 피난을 나섰단 말인가, 우리만 혼자 떼놓고 한무리로들? 옥자네, 점순네, 복이네 마진컨 길영감네 움집, 모두 싹떠났단말인가? 그는 무섭도 잊고 방문을 벌컥 열어채켰다. 소리를쳐서 불러 보았다. 비만 나릴뿐 인기척도 안한다.

그는 신을 끌고 뛰어 나갔다. 왈각하고 남의 방문을 잡아 다렸다. 잠겨있는 모양으로 열리지 않는다. 방문앞에 너저분한 신발짝들도 보이지를 았었다. 그옆집도 옆집도 비어있다. 역시 모두들 떠난 것이다.

노엽과 서러움이 꺾꺾 소리매여 목구렁으로 복바쳐 올랐다. 그는 흐느끼면서 바우를 등쳐업고 자기도 어두운 거리로 다름 질쳐 나왔다. 어디로 갈지 미처 생각도 못하고 마구대고 앞으로 걸어 나갔다. 어데선지 모르게 그러나 깜짝 놀라게 가까운 거리에서 요란한 총소리가 쉴새없이 일어난다. 송정화는 울면서 앞으로 앞으로 꺼꾸러질듯 급히 내어달었다.²²⁾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온 그날 송정화는 두려움을 느끼며 전쟁의 상황을 알고자 한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정확한 전쟁의 소식이 전달되지 않는다. 신문 혹은 피난민과의 대화를 통해 전황을 전망할 수 있었던 남성 시민들과 달리, 송정화에게 전쟁은 다만 스스로의 감각으로 감지해야하는 것이었다.²³⁾ 단절된 정보 속에서 송정화가 가장

22) 강신재, 『눈물』, 『문예』, 1951.1, 129면.

23) 김복순, 『1950년대 여성소설의 전쟁인식과 '기억의 정치학』, 『여성문학연구』,

두려움을 느낀 것은 다가오는 인민군의 포성이 아니라, 자신 몰래 서로 의지하면서 피난을 떠나던 이웃들의 발자국 소리이다. 송정화가 흘리는 첫 번째 눈물은 바로 이 혼자 남겨졌다는 공포에서 비롯되었다.

다만 모습이 추하기 때문에 피난조차 떠날 수 없었다는 기묘한 잔류의 논리는 국가주의적 반공론이 내세우는 수난과 시련의 가치를 의심하게 한다. 이때의 피난은 더 이상 민족의 비극적 운명으로 승화되지 못한다. 그것은 적자생존의 전쟁 상황 속에서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배제하는 극단화된 인간의 이기적인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공포와 불안의 서울 살이 동안 이웃들에게 징발과 징용을 강요한 송정화는 당연히 어리석은 인물이며 따라서 오인된 죽음이라는 비극적 죄과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송정화를 죽인 인민군의 총부리가 '추한 여성'을 배제해 온 이웃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할 때, 반공주의의 가치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양심적이고 선한 자유 진영의 시민들'은 더 이상 상상될 수 없었던 것이다.

『눈물』은 자발적으로 인민군에게 협조한 잔류민의 입장에서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²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웃을 버린 '비양심적인 송정화'는 결국 죽음이라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살아남은 잔류민의 양심은 보존될 수 있었다. 그러나 피난을 떠나는 자들의 발자국 소리에서 느꼈던 또 다른 공포는 여전히 전쟁의 일부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 잔류민들은 반공주의의 윤리를 구성해내었지만 동시에 반공주의적 양심의 모순을 목격했던 자들이기도 했다.

1950년 9월 28일 다시 서울로 돌아온 국군들을 통해 잔류민들은

2003, 41면.

24) 조남현, 『한국전시대소설연구』, 『한국현대소설의 해부』, 문예출판사, 1993, 44면.

경계밖에 놓인 자신들의 위태로운 삶을 자각하게 되었다. 잔류민들은 면역의 논리를 통해 자신들에게 양심적인 반공주의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잔류민들이 구성해낸 윤리적인 반공시민의 모습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이웃 몰래 떠나야했던 피난민의 얼굴을 다시 비추면서 국가주의적 양심의 정체를 의심스럽게 한다. 피난민들은 잔류민을 향해 민족적 양심을 요구했지만, 잔류민들의 되돌아오는 목소리 속에서는 수난의 피난서사에 남겨진 모순들이 발견된다. 피난민들이 잔류민을 다시 마주하는 것은 곧 민족의 수난으로 환원될 수 없는 잔혹한 전쟁의 생존논리를 직시하는 과정이기도 했던 것이다.

4. 1951년 1월 4일 이후의 서울, 비어있는 수도와 남은 자들의 시선

6월 25일 이후 피난이 일부의 서울시민과 대다수의 월남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것이었다면 1951년 1.4 후퇴 당시의 피난은 대부분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였다.²⁵⁾ 1950년 9월 서울에 입성한 국군이 그해 10월 중공군의 참전으로 다시 남쪽으로 후퇴하게 되었을 때, 다수의 시민들은 피난을 결심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피난양상의 변화는 다만 전쟁의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90일간 인민군 치하에 놓여있던 서울의 시민들은 비로소 남북의 전쟁이 단순한 군사적 분류가 아닌 민족 운명으로 치환되는 자신들의 전쟁이 되었음을 실감하였던 것이다.

1950년 9월 28일을 지나면서 남과 북 사이에 더 이상의 중간적 지역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하게 된 대다수의 시민들은 군대와 함

25) 장세훈, 『전쟁과 도시화』, 『도시연구』 8호, 2002, 168면.

께 피난을 떠났다. 두 번째 피난이 이어진 뒤, 서울은 거의 비어있는 상태로 다시 한 번 적군의 점령상태에 놓이게 된다. 군대와 정부를 따라 남하하였던 피난민들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피난지에서 일정한 생활의 근간을 마련하게 된다. 당대 임시수도로 기능하였던 부산은 바로 대표적인 피난지라 할 수 있다.

피난민들은 피난지의 생활을 정리하고 서둘러 서울로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휴전협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들은 피난지에서 불안정한 하루하루의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그리고 전쟁의 양상이 소규모 국지전의 형태로 지속되면서, 피난지 부산은 전쟁 물자 등을 통해 일종의 전쟁경제를 구성해내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동시에 전선의 절박한 생존문제와 동떨어진, 퇴폐와 타락의 후방생활로 형상화된다.²⁶⁾ 1.4후퇴 이후 피난민들의 서사는 이러한 부산의 상황을 전쟁의 폐허가 된 서울의 상황과 대조적으로 인식하면서 서울을 텅 빈 재건의 대상으로 사유한다. 국민이 부재하는 도시인 서울은 민족의 부흥을 위해 재건, 갱생해야하는 도시로 간주되는 것이다. 전쟁기에 이미 서울개발계획 등이 수립되었다²⁷⁾는 점은 바로 이와 같은 서울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박연희의 『훈미기』(1954)는 부산에서 피난생활을 하는 주인공의 생활을 통해 서울에 대한 전망과 그리움을 드러낸다.

(다 서울가면.....)

속으로 도사려 먹어보며, 집이 아니라 모든 생활에 있어서의 혁명까지도 하리라고 마음먹어오는 터였다.

26) 안수길의 『제3인간형』(『전시한국문학선』, 국방부정훈부, 1954)은 전시경제를 바탕으로 성공한 인물이 인간적 소명으로부터 멀어진 상황을 통해 피난지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27) 1952년 3월 25일 한강을 서울의 중심에 놓는다는 서울확장 구상이 발표되었다. 김동완, 『수도의 재구성 과 수도권의 탄생』, 『공간과 사회』 62, 2017, 231면.

그러나 권의 이즈음 생활이란 아내의 나무람은 둘째로, 권 자신으로서는 형언할수 없으리 만치 방탕에 속한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면 서도 권은, 오히려 그러한 자기 생활을 의식하기에 자신이 피로울수 있다는 조건을 스스로 사고 있는 것이라 믿고 살아간다고 자위 해보기도 하였다.²⁸⁾

부산에서 집이라고 할 수도 없는 토굴에서 살아가는 주인공 권은 서울로 올라가는 날을 기다리면서 서울에 돌아간다면 생활의 “혁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막상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정했다는 주변사람들의 이야기 앞에서 그는 서울로 가는 것을 망설인다. 권이 서울로 돌아갈 것을 다짐하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피난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가는 것이 곧 모든 생활의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다.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새롭게 재건되어야 하는 서울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온전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었던 것이다.

1950년 1월 4일 이후의 서울은 망각된 지역으로 남아있다. 이 도시의 모든 시민들은 남으로 피난을 떠났다고 간주되었으며, 다시 적의 수중에 들어간 수도는 복수를 다짐하게 만드는 상징적인 기호로 존재할 뿐이었다. 하지만, 실제 서울에는 여전히 피난을 떠나지 못한 자들이 남아있었다. 이들은 남한의 국민이었지만 적의 치하에 놓여있는 자들이었고, 이미 두 번째의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더욱 위태로운 자들이었다. 전쟁기의 서사들 중 2차 피난이후의 서울을 기억하는 서사들은 충분하지 않다. 9.28이전의 경험을 통해 피난가지 않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가를 실감했던 서울의 시민들은 다시 적의 경계 안에 놓인 서울을 이야기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다.

따라서 1.4 후퇴 이후의 서울은 직접적인 경험이 아닌 남아있는

28) 박연희, 『혼미기』, 『현대소설선』, 수도문화사, 1954, 108면.

자들을 향한 간접적인 그리움으로 서사화 된다. 이때 피난을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병약한 부모’라는 존재로 상징화되어 수난의 민족서사에 유입된다. ‘효’라는 안정된 가치체계를 전제로 서울에 남은 잔류민들을 재현하는 것이다. 한무숙의 『아버지』(1951)와 김광주의 『이단』(1954), 『불효지서』(1954)는 부모를 두고 피난을 떠나야 했던 자식들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다. 한무숙의 『아버지』는 “실없는 촌사람”인 아버지를 원망하는 한편 아버지에게 대한 지극한 효성을 지닌 규희가 피난을 떠나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아버지 이석종영감은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것을 낙으로 삼는 인물이다. 하지만 전세가 역전되어 서울이 다시 인민군 치하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 상황이 되자, 그는 곧 스스로를 희생하여 딸을 피난 보내겠다고 결심한다. 그리고 자신은 뒤에 따르겠다는 거짓말로 딸에게 피난을 종용한다.

차가 크게 「카-브」를 돌아 그 초라한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려할때 영감은 갑자기 무엇을 들물려고나 하는것처럼 손을 들고 다름질을 쳤다. 그러나 수보를 옮기지 못하고 눈우에 쓰러지는 것이었다.

순간 규희는 충동적으로 추력에서 뛰어내리려 하였다.

「아이 떠려져요. 위험해」

누구인지 깜짝 놀라며 그를 세계 잡아단졌다. 규희는 소름이 쪽 끼치는것 같이 짐우에 기대앉았다. 그를 잡아당긴것은 옆에 탄 사람뿐이 아니고 더욱 강력한 힘-생명에의 집착이었을런지도 모른다.

일순후 눈위에 쓰러진 아버지의 모습은 연신히이 그의 시야에서 살아지게되었다.

은은한 포성이 계속 울려왔다.²⁹⁾

29) 한무숙, 『아버지』, 『문예』, 1951.1, 128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남겨두고 피난을 떠나는 규히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 피난 트럭에 몸을 실었던 규히는 떠나는 자신을 향해 쫓아오는 아버지를 보고 충동적으로 뛰어내리려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자리에 앉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규히는 아버지의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자신을 자리에 끌어당긴 강력함 힘에 소름이 끼치는 듯한 전율을 느낀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지 않았던 것은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적지하의 서울을 경험한 후의 피난은 더욱 강렬하게 생존의 욕망을 자극하게 된다. 과거의 경험으로 전선의 경계밖에 놓이는 삶의 위험성을 인식한 자들은 필사적으로 피난의 행렬에 동참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난을 떠나지 못하는 약자들만이 서울에 남겨지게 된다. 가난하고 병든 부모는 이러한 잔류민의 모습으로 대표되면서 피난한 자들의 죄책감을 만들어낸다. 도강파가 만들어 내고자 했던 ‘민족의 양심’이 반공주의라는 의식적인 차원에서 잔류민들에게 죄책감과 반성을 요구하였다면, ‘불효’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피난민들의 죄책감은 전쟁에 대한 공포와 생존의 욕망에서 발생한 죄책감과 무의식의 층위에 남겨진 양심을 반영한다.

김광주는 『이단』, 『불효지서』라는 두 편의 작품을 통해 이와 같은 죄의식의 근원적인 차원을 드러낸다. 두 작품은 모두 어머니를 두고 피난해야했던 작가 자신의 경험³⁰⁾을 전제로 피난 온 아들의 내면을 기록하고 있다. 『이단』의 서사에서 주인공은 피난지에서 만난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서울에 두고 온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그는 죽은 어머니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피난지를 방황한다. 그는 스스로를 인간의 “이단”이라 지칭하면서, 죽음을 맞이

30) 최미진, 『한국전쟁기 경향신문의 문화면과 김광주의 글쓰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4, 2012.3, 335면.

했을 어머니에게 “제발 눈을 감으라”고 애원한다. 『아버지』에서 규희가 자신을 따라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피난을 떠나는 자의 잔혹한 생존논리를 직시하게 되었다면, 김광주의 소설은 어머니의 시선이라는 보다 직접적인 기제를 통해 스스로의 죄를 확인한다.

피난을 통해 서울의 시민들은 비로소 ‘민족적 양심’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족의 양심’으로 환원되지 않는 죄책감들은 여전히 서울에 대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서울에 남은 자들은 피난 온 자들의 기억에 남아 다만 살아남기 위해 떠났던 피난의 잔혹한 생존논리를 떠올리게 한다. 이때의 죄의식은 반공주의라는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로 의식화 된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욕망으로 현현하는 것이었다. 전쟁이 만들어낸 피난은 민족의 수난으로 의미화 되었지만 여전히 그것은 개인의 내면에서 죄책감의 형태로 잔류한다. 이는 ‘효’라는 가치로 서사의 전면에 부각되고 있었지만, 소설의 주인공이 인정하고 있듯, 피난민들의 고통은 다만, 효를 다하지 못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된 것이었다.³¹⁾ 피난은 여전히 나의 생존을 위해 타인의 생존을 뒤에 놓는 잔혹한 전쟁의 논리를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피난민들의 내면에 남겨진 무의식적 죄책감을 인지가능하게 하는 것은 서울에 남은 자들의 시선이다.

『불효지서』의 주인공은 전쟁의 종결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서울에 두고 온 어머니의 소식을 듣기 위해 다시 서울로 향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부산에 있는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는 이 작품은 어머니를 버리고 피난을 떠난 아들의 죄책감을

31) 이것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소위 어떤 양심의 찰라적인 번득임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것은 역시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자신이 죽어간 어머니의 망령을 생각 하는 불안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하로 밤이라도 마음 편히 눈을 감고 잠을 이루어 보자는 싸늘한 인간의 이기심에서 나온 소행이라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 것이요. 김광주, 『불효지서』, 『전시한국문학선』, 국방부정훈부, 1954, 33면.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에서 그들만의 생존방식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남겨진 자들 삶이 목격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불효지서』의 주인공은 자신이 자라왔던 서울의 풍경이 생경하게 달라졌음에 놀란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고 장례를 치러준 순임이네 모녀와 마주하게 된다. 어머니의 무덤을 찾은 주인공은 서둘러서 서울을 떠나고자 하지만, 순임이네 어머니는 한사코 그에게 딸의 얼굴을 보고 갈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라 노력한 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양공주 노릇을 하면서 생존해나갔던 잔류민들의 삶을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했다.

뒤로 도라앉은 우뚝뚝한 허리와 바위돌같이 납적한 궁둥이는 꿈쩍도 하지 않으며 체경숙의 얼굴만이 두 볼에다 볼을 두드리고 나서는 눈섭을 그리노라고 두 눈을 찡긋 찡긋하면서 건방지게 입을 여는 것이었오. 두말할것 없이 이것이 마누라쟁이의 딸인 순임이가 아니고 또 누구이었겠오.

「저도 잘 압니다.....이해 해 드릴 수 잇구 말구.....번연히 돌아가실줄 아는 팔십 노모님을 내동댕이 치시고 가시는 이인들 오직해야.....돈이지요.....

뭐! 세상이란 별게 아니더군요.....더군다나 이렇게 살기 어려운 세상이야...아모 생각도 마시구.....이상한 인연으로 알게 되었지만.....절 뭐.....당신의 어머니의 송장을 치워준 여자니 뭐니.....미안하니.....고마우니.....그런 생각은 마시구.....하루 밤 같이 노시구 내일 가서두.....」³²⁾

자신을 대신해 어머니를 모신 순임이는 주인공의 방이었던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그를 바라본다. 거울을 통해 주인공을 바라보는 순임의 응시³³⁾는 자신이 오히려 잔류민들의 시선에 사로잡혀 있다

32) 김광주, 위의 책, 45면.

는 인식을 불러일으키면서 주인공을 혼란스럽게 한다. 순임의 시선은 전쟁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삶을 일시에 자각하게 만든다. 그녀의 시선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이 더 이상 잔류민의 죄를 묻는 양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발견한다. 순임의 응시에 걸린 주인공에게 피난은 더 이상 약소민족의 수난으로 실재할 수 없었다. 주인공은 이제 잔혹한 전쟁의 현실을 직시하고 생존을 위한 피난의 과정을 복기해야했던 것이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 준 자신과 “하루 밤 같이 노시구” 가시라는 순임이의 목소리는 ‘민족의 양심’이라는 장치로 가려진 피난의 현실과 의미를 드러낸다. 순임은 어머니를 두고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의 복잡한 내면을 단지 “돈”으로 단순화한다. 순임은 부모를 버리고 피난을 떠난 것도, 서울에 남아 양공주노릇을 하는 것도 결국은 “돈”때문이라고 단정 짓는다. 더 이상 주인공은 자신이 경멸하는 양공주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 전쟁은 잔류민과 피난민 모두에게 상흔을 남겼고, 이들은 모두 전쟁 속에서 다만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인간의 ‘이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어머니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서울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죽음을 확인하면서 발견한 자신을 향한 응시 속에서 그는 자신의 애도가 종결될 수 없을 것임을 예감한다. 그것은 ‘불효’라는 죄의식으로 간단히 이름 지을 수 없는 것이었으며,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에 관한 실존적인 인식의 영역이었다. 비어있다고 간주된 서울에서 마주친 잔류민들의 시선을 통해 피난민들은 폭력적인 전쟁의 얼굴을 발견한다. 그리고 피난과 민족의 운명이라는 강고한 결속관계에 놓인 균열을 목격한다. 이제 피난

33) 내가 접하는 응시는 보여지는 응시가 아니라 타자의 영역에서 나에 의해 상상되는 응시이다. 자크라캉, 권택영 편, 『자크라캉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2005, 209면.

은 더 이상 괴뢰에 의해 침략당한 비극적인 민족의 운명으로 승화하지 못한다. 그것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자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잔혹한 전쟁의 일부로 기억되는 것이다.

5. 결론

전쟁기의 서울은 위태로운 국민의 운명을 그대로 재현한다. 전쟁 발발 삼일만에 인민군이 서울에 입성한 순간부터, 서울의 시민들은 안정적인 후방이 아닌 포성이 울리는 전장의 삶을 경험한다. 피난은 비전투원이었던 시민들이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국제전이자 내전이라는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한국전쟁의 특성상, 서울에 나타난 인민군들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남한의 국민들을 오히려 전쟁이 지속되고 남한정부가 다시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 앞에 죽음의 위기상황이 놓여있음을 실감한다. 한국전쟁에 있어서 피난은 적으로부터의 도망이라는 의미와 국민으로서의 증명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전쟁에서 발견되는 특수한 피난의 의미를 전제로 피난을 떠난 자들과 떠나지 못한 자들이 마주치는 장면들에 주목하였다. 전쟁 발발직후 서울시민들에게 피난의 상황은 상상되지 못한다. 인민군들의 서울 입성은 곧 민족의 비극으로 치환되었고, 자유진영의 끝에서 인민군의 깃발을 본 남한의 국민들은 자결이라는 방식을 통해 국민화의 과정을 완성해내고자 한다. 자결하는 자들에게 피난은 국가의 운명에서 이탈하는 배신자적 행위였다. 이들은 국민보다 먼저 피난을 떠난 정부의 모습을 소거하면서 서울의 점령을 곧 민족의 비극적 결말로 사유한다. 국가를 위한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반공의 논리 속에서 역설적으로 생존을 위한 피난의 의미가 부각되었던 것이다.

다시 서울이 수복되었을 때, 피난을 떠난 자들은 자신의 피난을 민족의 운명으로 환원하면서 잔류파들에게 양심에 따른 고백과 반성의 자세를 요구하였다. 국가의 운명과 함께 자결을 선택함으로써 숭고한 국민으로 승화된 자들을 대신하여 피난민들은 새로운 국가적 정체성을 담보하게 되었다. 자결하지 않고 살아남은 잔류시민들은 피난민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의 민족적 양심을 증명하면서 자신의 면역성을 검증해 내고자한다. 잔류민의 논리에서 주목할 것은 이들이 피난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한편 반공서사의 이면에서 피난과 생존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심적 국민이라는 피난민들의 자기규정 속에서 생략된 생존의 욕망을 재발견하는 것은 다만, 잔류민의 목소리에서뿐만이 아니다. 1.4후퇴 이후 서울에 남은 잔류민들을 목격하는 피난민들은 피난을 떠난 자신의 모습이 남아있는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남은 자들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부채의식으로 서사화 되는 피난민들의 내면은 한국전쟁의 피난이 단순히 국가주의적 정체성을 담보하는 과정이 아니었음을 밝혀준다. 그리고 반공주의로 각색된 피난의 서사 내부에 전쟁의 비윤리성과 반공의 불안정한 논리를 직시하는 시선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강신재, 「눈물」, 『문예』, 1951.1.
 김광주, 「불효지서」, 『전시한국문학선』, 국방부정훈부, 1954.
 김송, 「서울의 비극」, 『전쟁과 소설』, 계몽사, 1951.
 박연희, 「혼미기」, 『현대소설선』, 수도문화사, 1954.
 안수길, 「제3인간형」, 『전시한국문학선』, 국방부정훈부, 1954.
 염상섭, 「해방의 아침」, 『신천지』 6권1호, 1951.
 오제도, 「민족양심의 반영」, 『적화삼삭구인집』, 국제보도연맹, 1951.
 유진오, 「서울탈출기」, 『고난의 90일』, 수도문화사, 1950.
 장용학, 「찢어진 윤리학의 근본문제」, 『문예』, 1953.6.
 최인욱, 「목숨」, 『문예』, 1950.12.
 한무숙, 「아버지」, 『문예』, 1951.1.

2. 2차 자료

- 권명아, 「여성 수난사 이야기, 민족국가 만들기와 여성성의 동원」, 『여성문학연구』 7, 2002.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9.
 김동춘, 「서울시민과 한국전쟁」, 『역사비평』, 2000.5.
 김동완, 「수도의 재구성 과 수도권의 탄생」, 『공간과 사회』 62, 2017.
 김복순, 「1950년대 여성소설의 전쟁인식과 ‘기억의 정치학」, 『여성문학연구』, 2003.
 김영미, 「박완서 문학에 나타난 서울에서의 한국전쟁 체험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54, 2018.4.
 나보령,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피난지 부산과 아메리카니즘」, 『인문논총』 74 권 1호, 2017.2.
 박태균, 『한국전쟁』, 책과함께, 2011.
 박덕규, 「6.25 피난공간의 문화적 의미」, 『비평문학』 39, 2011.3.

- 서동수, 「모운숙의 피난체험과 도강과의 글쓰기」, 『한국문예비평연구』 33, 2010.12.
- 서동수, 『한국전쟁기 문학담론과 반공프로젝트』, 소명출판, 2012.
- 송은영, 「1950년대 서울의 도시공간과 문학적 표상」, 『한국학연구』 29, 2013.
- 이민영, 『1945년-1953년 한국소설과 민족담론의 탈식민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유임하, 「이테올로기의 억압과 공포」, 『현대소설연구』 25, 2005.
- 이순욱, 「한국전쟁기 문단 재편과 피난문단」, 『동남어문논집』 24, 2007.11.
- 장세훈, 「전쟁과 도시화」, 『도시연구』 8호, 2002.
- 정병준, 『한국전쟁-38선의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9.
- 조남현, 「한국전시소설연구」, 『한국현대소설의 해부』, 문예출판사, 1993.
- 차철욱, 「한국전쟁기 임시(피란)수도 부산의 재현과 의미」, 『항도부산』 35호, 2018.2.
- 최미진, 「한국전쟁기 경향신문의 문화면과 김광주의 글쓰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4, 2012.3.
- H. 포터 애벗, 『서사학 강의』, 문학과 지성사, 2010.
-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 자크 라캉, 권택영 편,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2005.
-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2014.

<Abstract>

Seoul in Wartime and The Possibility/Impossibility of Evacuation

Lee, Min-Young

Evacuation of the Korean War was a major war experience that the people had experienced. The special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War, in which the fronts changed drastically, was the reason that the majority of the Korean people were in a status of refugees. In this paper, I consider evacuation as a major factor of the Korean War experience, trying to analyze the narratives of those who have evacuated and those who have not. This presupposes that the identity of the ‘evacuating nation’ cannot be reduced to a nationalist discourse of ‘passion of the invaded weak nation’.

The novels of war time, which fail to secure a sense of distance from the direct war experience, represent the contradictions between the national logic of evacuation which designed to build the national identity and the individual desire to survive in war. To look at this in detail, I would like to make novels about Seoul in war time an object of study.

The narratives of wartime novels show a fluid meaning of evacuation as the rapidly changing situation of the war. In order to examine this, I focus the point that evacuation became a main agenda. They are the moments of outbreak of war, recapturing of Seoul and



1.4 Retreat. At that time, the situation in Seoul was developing very urgently; Chaos is caused by the departure of the government from the capital which was supposed to envision a national identity. The narrative of suffering that the evacuating government constructed was transferred to the logic of evacuating people, but the issue of fear and survival of war still remained behind the national narrative.

In this paper, I found that the meaning of evacuation was not nationalized. It was considered as stealing away from the national destiny in the narratives that deal with the three days after the outbreak of war. And then the left people faced the violent power of the returning people and try to redefine the inner ethics of the anticommunism and try to prove their conscientious behavior. The protagonists, who had evacuated to Busan, witnessed the remnants of Seoul and faced their desire for survival in their evacuation. These individuals' desires are not reduced to nationalist evacuation narratives but are left in the form of individual guilt and debt consciousness.

Key words: Dogang, Bidogang 6.25, 1.4 retreat, 9.28 Seoul restoration, anti-communism, conscience

투 고 일 : 2018년 8월 15일 심 사 일 : 2018년 8월 15일-9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8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 2018년 9월 24일